

플레하노프(Georgii Valentinovich Plekhanov, 1856~1918) 와 러시아 맑스주의의 理論的 基礎*

李 仁 浩
(서양사학과 교수)

게오르기 발렌티노비취 플레하노프를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창시자라고 보는 견해에는 異論이 없다. 맑스주의 理論家로서의 그의 권위와 명성은 비단 러시아 혁명세력 내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사에서나 러시아의 철학사상사에서나 그는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플레하노프는 강단이나 지상을 통해서만 자기 이론을 설파한 “합법적” 맑스주의자가 아니었다. 1883년 혁명적 망명객으로서 <노동의 해방>(Osvo-bozhdenie Truda)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러시아인 맑스주의 이념조직을 창립한 이래 그는 1917년 전제정권 몰락 이후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 전 생애를 망명객으로 지내며 러시아에서의 맑스주의의 승리를 위해 투쟁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플레하노프는 혁명 주도 세력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혁명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배신자와 反革命 분자라는 지탄까지 모면할 수 없게 된 그는 머지 않아 자신도 그 악명높은 포트르-파벨 요새 속에 자기의 후배동지들에 의해 투옥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¹⁾ 자기 가슴은 사상적 씨앗에서 배태된 혁명의 귀추에 대해 깊은 회의와 실의에 잠긴 채 1918년 5월 그는 핀란드의 한 요양소에서 명예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플레하노프가 특별한 역사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가 추구했던 혁명적 이상과 인간적 패배 사이에 빚어진 이러한 비극적 모순 때문이다. 反맑스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통파 맑스주의를 고집해온 플레하노프의 이러한 비참한 종말은 바로 그가 받들었던 맑스주의 이념체계 자체에 대한 고발이요 증언이었다. 서방의 선진국들에서 개량주의가 혁명적 맑스주의의 성공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렸는가 하면 맑스의 사회주의 혁명론은 러시아와 같은 후진국에는 더더구나 적합치 않은 이론임이 플레하노프의 좌절을 통해 입증된 것이었다.²⁾

이와 대립되는, 소련의 레닌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잘못된 전적으로 플레하노프 개인에게

* 이 글은 연구논문이 아니라 “19세기 유럽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하는 소개서의 한 부분으로 쓰인 것임을 밝힌다.

1) Samuel H. Baron, Plekhanov. *The Father of Russian Marx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 353.

2) 같은 책 p. 361.

있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레닌과 결별하고 멘셰비즘의 오류에 빠졌던 그는 혁명운동에서의 주관적 측면과 당의 역할을 과소평가했으며, 사회발전 과정에서의 의식과 이념이 경제에도 역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었다.³⁾ 그는 맑스주의의 해석에서 부분적 오류를 범했을 뿐더러 러시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상에 충실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비평가들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사고방식에서 그의 치명적인 결함을 찾는다. 맑스주의 이론을 실패하는 데 있어 그는 맑스 자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경직성을 드러내었고 따라서 러시아의 현실에 맞게 맑스주의 이론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⁴⁾ 그에게는 맑스의 초기 저술들이 알려지지 않았았으며 맑스 자신보다도 주로 엥겔스를 통해 변증법적 유물론과 史的 유물론을 수용하고 정립했었다는 데서 그의 실패에 대한 설명을 찾기도 한다.⁵⁾ 그러나 결국은 그 자신을 패배시켰을 뿐 아니라 맑스의 이념을 파괴하고 대체하게 된 소련의 변태적 국가 사회주의 이념체계를 탄생시킨 데 대한 그의 책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⁶⁾

이러한 여러가지 해석들은 각기 그 나름대로의 주창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맑스주의 이념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큰 논쟁속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는 시비를 가리는 실마리를 잡을 수조차 없다. 짧은 소개의 글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플레하노프라는 한 개인과, 제정 말기의 러시아 사회와, 맑스주의라는 이념체계의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으며 그 과정 속에서 그 세가지가 다 어떻게 변하고 발전했는가를 조명해 보는 일이다. 맑스주의의 사상적 보따리 속에서도 어떠한 측면이 어느 때 왜 플레하노프에 의해 특별히 강조되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물어봄으로써 플레하노프가 “정통파” 맑스주의자였느냐 아니냐 하는 가공적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제정말기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 청년혁명가로의 출발

개인적 배경으로 본다면 플레하노프가 혁명가의 길을 걸어야 했을 특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1856년 러시아 중십부 탐보프주의 타타르계 지방지주의 말아들로 태어났다. 관직과 군직에 봉사해온 집안의 전통에 따라 그는 보로네즈 사관학교에서 중등교육과정을 마쳤고 1873년 수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 있는 콘스탄티노프스크 고등사관학교에 진학했다.

3) B.A. Chagin, *G.P. Plekhanov i ego rol' v razvitsii Marksistskoi filosofii*, Moskva-Leningrad, 1963, pp. 67, 165-167.

4)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3 vols., Oxford, 1978, II, p. 344.

5) James S. Allen, "Editor's Preface," *Fundamental Problems of Marxism by Goerge V. Plekhanov*, London, 1969, p. 13.

6) Kolakowski, 앞 책, p. 353.

유난히 어머니와 가까웠던 그의 생애가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파멸의 길로밖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접어든 것은 러시아 역사의 바로 그 시점에 17세의 청년이었던 그가 고향을 떠나 수도에 홀로 오게 되었다는 우연적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던 듯하다. 한 학기를 마친 후 사관학교에서 자진 퇴학한 그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광업전문학교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전제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보다는 비판적 인텔리겐치야 사이에서는 훨씬 더 떳떳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던 생산자로서의 생애로 들어서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첫 학년에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될 만한 좋은 성적을 올렸던 그가 2학년 말에는 출석 미달로 제적당했다. 1874년에 있었던 대중운동으로서의 인민주의 운동의 제 1차 물결이 농민들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쳐 실패로 돌아간 직후 전제정권과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암투의 소용돌이 속으로 플레하노프는 흡입되어 들어갔던 것이다.

인민주의 운동의 여러 갈래 가운데서도 플레하노프가 가담했던 것은 대중의 선동을 통한 사회혁명을 주창하던 바쿠닌 계열이었다. 〈土地와 自由〉(Zemlia i Volia) 지하조직의 창립회원이 된 플레하노프는 1876년 12월 카잔성당 앞에서 열렸던 정치범 학대에 대한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주동함으로써 그때부터 계속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는 러시아 농민의 사회주의적 성향과 혁명적 잠재력에 대해 기대를 거는 전형적인 인민주의자였으나 개인적 테러행위나 소수의 음모를 통한 권력장악의 방법은 거부했다. 1878년 페테르부르크 지사 트레포프의 암살을 시도했던 베라 자술리취(Vera Zasulich, 1847~1919)가 배심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고 도피한 후 한층 더 팽팽해진 전제정권과의 대치관계 속에서 티호미로프(Lev Tikhomirov)가 이끄는 극렬파가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을 목표로 설정하고 〈人民의 意志〉(Narodnaia Volia) 테러조직을 편성하자 플레하노프는 자술리취와 도이취(Lev Deutsch)와 함께 〈黑色再分配〉(Chernyi Peredel)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조직을 개편했다. 토지의 공동체적 분배라는 농민사회주의 이상에 대한 재천명이었다.

조직으로도 이념으로도 〈흑색재분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심해지는 경찰의 추적 때문에 플레하노프, 자술리취, 도이취는 1880년 부득이 망명의 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고 1881년 3월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에 뒤따른 반동의 강화는 〈흑색재분배〉뿐 아니라 러시아 혁명운동 전체에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요구하는 위기를 몰고왔기 때문이었다. 플레하노프가 맑스주의로 전향하게 된 것은 1880년대초 망명객으로서 파국에 직면한 인민주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1883년 제네바에서 〈勞動의 解放〉(Osvobozhdenie Truda)이라는 이름의 맑스주의 이념조직을 창립한 그는 1917년 2월 혁명이 성공하기까지 다시는 러시아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고 좌우로부터 끊임없이 닥쳐오는 위협으로부터 혁명운동의 맑스주의적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일이 그의 필생의 과업이 된 것이었다.

II. 人民主義와 〈勞動의 解放〉

플레하노프가 제네바에 망명한 후 맑스주의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맑스의 사상은 그것에 대해 호의적인 관심을 가졌던 러시아 인민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소개되어 있었으며 1875~1876년에 플레하노프는 “자본론”을 읽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⁷⁾

그도 처음에는 많은 다른 인민주의자들처럼 맑스의 유물론이 인민주의, 특히 정치적 개혁주의에 맞서 사회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바쿠닌의 사회철학을 정당화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인민주의의 고전으로 인정받게 된 라브로프(Petr Mikhailovich Lavrov, 1823~1900)의 “역사학적 서한”(1868~1869), 미하일로프스키(Nikolai Konstantinovich Mikhailovskii, 1842~1904)의 “진보란 무엇인가?”(1869)에 뒤이어 1872년에 러시아에서 번역판으로 간행된 맑스의 “자본론”이 예상 밖의 호의적 반응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조건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유물론적 토대와 자본주의의 착취적 성격에 대한 조명 때문이었다. 유럽의 자본주의와 부르조아지에 대해 전체체제에 대해서만큼이나 깊은 불신과 혐오를 느끼고 있던 러시아의 지식인들에게는 자본주의의 구조에 대한 맑스의 분석은 분업에 따른 인력의 해체위험을 지적하고 농민사회주의의 미덕을 찬양하던 미하일로프스키 등의 인민주의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보였다. 발리쯔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도래를 방지함으로써 러시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인민주의의 기본이념으로 굳어진 것은 “자본론”의 영향하에서였다.⁸⁾ 사실 인민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자본론”이 러시아에서 출판된 후 8년간이었다.

콜라코프스키가 지적했듯이 맑스주의로의 플레하노프의 전향은 새로운 세계관의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⁹⁾ 바쿠닌주의자로서 그는 이미 유물론과 무신론을 오래전부터 수용하고 있었다. 플레하노프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맑스주의를 받아들이게 한 것은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발견이었다. 1880년 러시아를 떠나기 전부터 농촌공동체에 관한 새로운 조사연구들에 나타난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인민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이론의 기반이 되고 있던 농촌공동체가 되돌이킬 수 없는 해체과정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졌었다. 유럽에 온 후 러시아에서 접할 수 없었던 많은 문헌을 탐독하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활동을 지켜본 결과 그 의심은 러시아에도 자본주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확신으로 변했으며, 맑스주의 혁명이론이야말로 러시아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멧세지라고 믿

7) Baron, 앞 책, p. 50.

8) Andrzej Walicki,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From Enlightenment to Marxism*, Oxford, 1980, p. 222.

9) Kolakowski, 앞 책, p. 331.

게 된 것이었다. 러시아의 혁명가들에게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길, 자본주의와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가는 먼 길을 걷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플레하노프의 맑스주의로의 전향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거의 아무도 러시아에 맑스의 사회주의 혁명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지 않으려 할 때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었다.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의 저항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진영내의 반응도 그리 고무적이지 아니었다. 1882년 플레하노프가 노어로 번역하여 간행한 “공산당 선언”에 진분을 써준 맑스 자신조차도 러시아 고유의 사회주의로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¹⁰⁾ 1875~1876년 트카초프가 러시아의 후진성이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불량키주의적 혁명이론을 주창했을 때 앵겔스는 그를 “사회주의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 몰아부쳤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혁명의 전망이 밝지 못하게 느껴지고 있던 때 맹렬한 기세를 떨치던 인민주의 혁명운동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맑스와 앵겔스는 러시아의 독특한 사정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혹시라도 러시아에서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인민주의자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폭력주의적 투쟁방법을 포기하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노선을 새로 채택하려는 듯한 몇몇 젊은 러시아 망명객들의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1883년 플레하노프는 맑스 자신보다도 더 “맑스주의적”이 되는 미묘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었다. 플레하노프는 자기의 반대자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도 부르조아지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기여도 인정하는 맑스의 혁명이론이 완전무결한, 따라서 반론이나 異見의 제시가 불가능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철학체계의 한 부분임을 입증해야 되었다. 정통성을 항상 고집하던 플레하노프의 맑스주의가 다른 이론가들의 경우에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폐쇄적 성격을 띠며, 강력한 결정론적 입장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초창기부터 러시아 맑스주의가 직면해야 되었던 이러한 특수한 저항적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플레하노프가 러시아 맑스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노동의 해방>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밝히는 의로운 투쟁을 하던 시기에 쓰여진 두 편의 긴 논문 “사회주의와 정치투쟁”(1883)과 “우리들의 차이점”(1885)을 통해서였다. 첫번째 논문은 <인민의 의지>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혁명세력이 남아빠진 행동강령과 전통적 행동방식을 비판적으로 재고함으로써 바쿠닌주의자나 라브로프주의자들처럼 역사의 낙오자가 되고 “후에 분열과 새로운 실망”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피하자는 비교적 조심스런 제안이었다.¹¹⁾ 러시아에서

10) Baron, 앞 책, pp. 67-68.

11) Georgi Plekhanov, *Selected Philosophical Works*, 5vols., Moscow, 1980, I, p. 106.

“사고하는 프롤레타리아”인 혁명적 인텔리겐치야가 정치적 음모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거나와 실사 성공한다 한들 그 뒤가 더 문제였다. “토지와 자유”라는 구호하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된 인민”이 생산을 국제적으로는 고사하고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책임을 감당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는 예언적 대목에서 플레하노프는 말했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인민의 의지”가 수렴한 “임시정부”는 장악한 권력을 인민의 대표자들에게 양도하지 않고 공식정부가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두가지 대안에 적면하게 될 것이다. 성취해 놓은 “경제적 평등”이 서서히 붕괴되어감을 무관심한 방관자처럼 보고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전국적 생산을 “조직”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과업은 현대적 사회주의 정신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부 자체의 비현실성과 노동자들 자신의 습성, 전국적 노동의 발전에서의 현재의 수준 등이 모두 장애가 될 것이다. 또 다른 길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이상들에서 구원을 찾는 것이다. 단지 페루에 “태양의 아들들”과 그들의 관료들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특수신분층이 전국적 생산을 관리하도록 그러한 이상들은 조정될 것이다.¹²⁾

“사회주의와 정치투쟁”에서 플레하노프는 아직도 러시아의 혁명세력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은 남아있다는 듯한 조심스런 어조를 택했다. 그러나 인민주의자들의 반응은 예상했으리만큼 격렬했다. 특히 티호미로프는 플레하노프와 <노동의 해방> 집단이 혁명에 대한 배반자라는 극단적 입장을 취했으며 인민주의의 이론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西歐주의적이던 라브로프까지도 전제정권과의 대결이 지상과제인 시점에서 혁명세력내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플레하노프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¹³⁾ 플레하노프는 라브로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으로 시작되는 보다 더 긴 논문 “우리들의 차이점”을 발표하여 자기의 입장을 다시 변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상대방에게 실자리를 남겨주지 않는 격렬한 논쟁조로 쓰인 이 글은 러시아의 혁명운동이 발전해 온 경로에 대한 비판적 회고,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의 발달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시,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의 설파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티호미로프와 트카초프가 공격의 구체적 표적이 되고 있다.

플레하노프의 주장을 요약하면 역사발전, 특히 사회주의 혁명의 달성에 필요한 요건에 관한 맑스주의의 기본 명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명제들을 펴기 위해 동원된 공박과 설득의 방법이 러시아 사회와 혁명 세력의 특성과 체질에 대한 조명이 된다. 인민주의자들은 <노동의 해방> 집단이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냉담하며 부르조아지의 편을 드는 혁명의 배신자들과 비탄하고 있었다. 러시아도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것을 거침으로써만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근거에서

12) 같은 책, I, p.99.

13) 같은 책, I, p.107.

였다. 그러나 플레하노프가 볼 때 그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 징후를 설명하는 의사를 보고 병을 조작한다고 비난하는 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었다.¹⁴⁾ 러시아에서도 이제 농촌공동체는 견잡을 수 없이 붕괴되어 가고 있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순수한 동기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해도 그것이 역사의 대세로서 다가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다. 농민들 사이에서의 계층분화는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가 없는 농업무산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토지를 독점하게 되는 소수의 지주들은 현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것이며 공업과 교통업의 발달 또한 러시아를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시켜가고 있었다. 사회는 소수의 자본가와 점점 더 증대해가는 프롤레타리아로 양분될 것이 틀림없었고 그 두 계급사이의 투쟁의 결과로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성립될 것이었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터득한 사람들은 인민주의자들은 달리 농민의 희생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지지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감지함으로써 자본주의로의 전환과정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고통을 가능한 한 감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이었다.¹⁵⁾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달과정은 전제체제와 봉건적 유산의 잔재 때문에 방해받고 왜곡되고 있음을 플레하노프도 인정했다. 그러나 트카초프와 티호미로프가 생각하고 있듯이 소수의 혁명가들이 음모나 테러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이제 겨우 시작된 단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정치투쟁을 통해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전제체제를 타도하고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지와 힘을 합하여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는 것이었다.¹⁶⁾

앞에 놓인 일차적 과제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적대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두 계급인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이해가 일치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혁명이 부르조아 혁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부르조아지의 주도권 하에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아직 미숙하고 독자적 힘의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용기도 없는 러시아의 부르조아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으므로 러시아의 부르조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주도하에서 이룩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혁명이 성공하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은 부르조아지였으며 프롤레타리아는 바로 자기가 도와서 탄생시킨 그 체제에 다시 맞서 싸워야 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었다.¹⁷⁾

인민주의자들에게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의 승리를 가져올 혁명을 위해 투쟁한다는

14) 같은 책, 1, pp.127-128.

15) 같은 책, 1, p.129.

16) 같은 책, 1, p.352.

17) 같은 책, 1, p.351.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리고 용납이 될 수 없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은, 플레하노프의 지적에 따르면, 강력한 부르조아 세력이 형성되기도 전에 러시아에서는 과학적 사회주의 덕분에 역사의 방향을 바로 간파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태세를 갖춘 혁명적 인텔리겐찌야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러시아의 자본주의는 늦게 시작되었으며 덕분에 서구로부터 기술과 경험을 도입해 올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의 발달의 주기와 부르조아지의 지배기간이 서구에서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컸다. 다만 그것을 전적으로 건너뛰거나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¹⁸⁾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는 서구의 프롤레타리아의 패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자본가에 의해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체험을 거침으로써만 의식화된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도 가능해지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혁명세력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테두리와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 자신이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자동적으로 사회주의 의식을 갖게 되고 계급적 이해관계를 올바로 터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디까지 부르조아지의 이해관계와 일치되고 어디에서부터 대립되는가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인텔리겐찌야의 임무였으며 혁명을 주도할 당의 필요성이 거기에서 대두하는 것이었다.¹⁹⁾

플레하노프가 볼 때 농촌공동체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농민에 대한 연민에 근거를 둔 감상적 인민주의의 위험은 티호미로프식의 실속없는 혁명적 모험주의를 낳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이점은 취하되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기울고 있는 V.V.(보른쑈프의 필명) 같은 위장된 반동이론가들의 이론에 말려들으로써 실제로 전제정권의 입장을 옹호하게까지 되는 것이었다.²⁰⁾ 혁명운동, 그중에서도 특히 <인민의 의지>의 역할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론들과의 무조건의 결별”이 시급하며 바로 그것이 테러를 통해 운동에 공헌했던 혁명적 영웅 등의 추억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강령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부터 출발했던 가장 위대한 테러리스트들의 전통을 살리는 길이었다.²¹⁾

Ⅲ. 변증법적 유물론과 史의 유물론

1880년대 전 기간을 통해 러시아의 혁명운동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인민주의의 환상을 깨뜨리고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정권과의 직접적 대결에 우선해야 될 과제라는 플레하노프의 진단은 결코 잘못된

18) 같은 책, I, p.104.

19) 같은 책, I, p.352.

20) 같은 책, I, pp.214-215.

21) 같은 책, I, p.358.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혁명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아직 세력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도 하지 않은 맑스주의와 인민주의 사이의 차이를 극구 강조하는 플레하노프의 시도는 별로 호응을 받기 어려운 것이었다.²²⁾ 외국에서 간행되어 비딜리에 러시아로 반입되는 그의 저술들을 접할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 또한 얼마 되지 않았다.

플레하노프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미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에 접어들어 러시아에서 혁명적 맑스주의가 발을 붙일수 있는 현실적 토양이 마련되면서부터였다. 1890년 초 농촌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자 혁명적 인텔리겐찌야는 다시 농민들 사이에서 선전과 선동활동을 개시했으나 농민들의 “원시적 야만성과 침투하기 어려운 몽매성”은 지식인들에게 잔인한 실망을 안겨주었고 맑스주의 이론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농민대중의 보수적 태도에 비해 재무대신 위테의 산업화 계획의 진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노동자층은 혁명적 인텔리겐찌야의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혁명세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인민주의 혁명씨름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레닌이 이미 1895년에는 마르토프(Iulii Martov, 원명 Zederbaum, 1873~1923)와 함께 <투쟁 연맹>(Soiuz Bor'by)을 조직하고 상트 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돌입할 수 있던 것이 두드러진 예였다.

1890년대 러시아에서 맑스주의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좁은 의미의 혁명이론으로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누구나 잠재적으로는 가지고 있던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러시아의 인민을 위해 완전히 자기를 바쳐야 한다는 인텔리겐찌야 특유의 도덕적 사명감 양쪽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가능성을 내포한 이론체계였다. 그러나 맑스주의가 제시하는 가능성이 컸던 만큼 그것에 대한 기대나 해석도 다양했다. 첫째로 그것은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경제분석의 틀로서 왕당파가 된 지베르나 맑스주의 경제학자 투간 바라노프스키(Tugan Baranovskii) 등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둘째로 맑스주의는 경제적 유물론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이론으로서 혁명적 낭만주의나 자코뱅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적 성향의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맑스의 역사발전 이론은 서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지 그것이 러시아에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을 수반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반드시 혁명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²³⁾ 맑스주의가 가지는 또 하나의 매력은 지적, 도덕적 차원의 것이었다. 극단적 실증주의에 대항해서 극단적 관념론이 “예술을 위한 예술”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던 상황에서 맑스주의는 정신적 혁명의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진도된 형태의

22) Baron, 앞 책, p.135.

23) Walicki, 앞 책, pp.436-437.

종교적 신앙이 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²⁴⁾ 자기들이 인민주의자인지 맑스주의자인지를 물을 겨를이 없이 용납될 수 없는 현실을 사회주의로 대처해야 된다는 일념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있던 혁명운동의 현역들과는 달리 이론적 근거에서 맑스주의에 매혹되고 있었던 사람들은 스트루베(Petr Struve, 1870~1944), 베르자예프(Nikolai A. Berdiaev, 1178~1948), 불가코프(Sergei N. Bulgakov, 1871~1944) 등 대학을 다니거나 갓나온 지식인들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어찌 이해되고 있든간에 189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 맑스주의는 새 세대를 휩쓰는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고 혁명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플레하노프 같은 혁명적 맑스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혁명 이데올로기로서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을 전파시키는 일이 절실했는가 하면, 그때까지 혁명운동을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인민주의 진영에서는 맑스주의의 이러한 도전을 초기에 뿌리 뽑는 일이 시급했다. 그때까지도 합법적 간행물인 “러시아의 부”(Russkoe Bogatstvo)를 기관지로 확보하고 있던 인민주의의 정진적 지주 미하일로프스키는 1892년 “러시아의 부” 및 “러시아의 사상”(Russkaia Mysl)에 실린 글에서 맑스의 “러시아인 제자들”에 대한 특별전을 선포했다. 여기에 맑스주의자들이 반발하는 글들이 나오자 1894~1895년 사이에 러시아 사상계에서는 인민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 사이에 이론적 격전이 벌어졌다.²⁵⁾ 이때까지도 러시아 경찰의 관심은 테러와 대중 선동을 통해 혁명활동을 하는 인민주의 계열의 행동과 씨름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념논쟁은 자유경제협회(Volnoe Ekonomicheskoe Obshchestvo)가 주최하는 공개 토론석상이나 아니면 흔히는 익명으로 전개되는 지상 토론을 통해 거의 공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1893년 다니엘슨의 “개혁후의 우리경제”를 비판하는 글에서 스트루베가 맑스주의의 기본입장을 밝힌 데 이어 1894년 4월에는 최근 맑스주의로 진향한 레닌의 “누가 인민의 벗인가”가 발표되었고 같은 해 9월 스트루베는 또 “러시아의 경제발달에 관한 비판적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로 인민주의자들에게 다시 대응했다.

러시아 맑스주의자들의 교과서의 구실을 하게 될 플레하노프의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이 벨토프라는 익명으로 발표된 것은 그해 12월 바로 이러한 논쟁의 맥락에서였다. 이 글에서 플레하노프가 중심적인 목표로 삼은 것은 러시아도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서만 사회주의로 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맑스주의자들을 경제적 결정론자들로 몰아부치려는 미하일로프스키의 견해가 전혀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그의 주관주의적 사회학의 비과학성을 공박하려는 데 있었다. 미하일로프스키 외에도 유물론도 관념론이나 마찬가지로 일방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크리벤코(S.N. Krivenko) 등이 표적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 권

24) 이인호, 「제정 러시아에서의 마르크시즘의 수용과정」, 『마르크시즘 100년, 思想과 흐름』, 서울, 1984, p. 251.

25) 韓貞淑, 「레닌의 인민주의 비판에 대한 시론적 검토」, 『釜山女大史學』, 第3輯, 1985. 12, p. 6.

의 책이 되는 이 글은 여전히 상대방을 몰아부치는 산만한 정치적 공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맑스주의 이론의 포괄적인 서술이었다. “K. 맑스의 철학적 시각과 사회적 시각”(1890), “헤겔 사망 60주기”(1891), 엥겔스의 “루트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1894)에 대한 주석, “유물론의 역사 개관”(1894) 등의 글을 통해 이미 개진되었던 그의 견해들이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에서 포괄적으로 체계화 된 것이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러시아에 자본주의가 역사적 현실로 등장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맑스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를 시정함으로써 어떤 역사 외적 도덕적 기준에 따르는 인간의 의지와 의식적 행위——그것이 혁명적 인민주의이든 국가의 개입을 선호하는 관변인민주의이든——로 역사의 자연적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창하는 모든 “주관주의 사회학”의 근거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단원론적 견해의 발달”에서 플레하노프가 강조한 것은 맑스의 경제이론과 역사이론은 그 두가지 사이에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질 뿐더러 그 두가지가 다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는 변증법적 철학체계를 떠나서 따로 이해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혁명이론은 물론 자연과학도 미학도 다 같이 이러한 철학적 총체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며 역사의 필연이나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런 전체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맑스주의 원리가 철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되는 것이며 역사에 적용되면 사적 유물론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맑스주의를 변증법적 유물론이라 이름붙인 사람이 플레하노프였던 듯하다.²⁶⁾ 그가 맑스주의 이론가로서 사적 유물론에는 탁월했지만 변증법적 유물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

플레하노프에 따르면 맑스주의자들이 “경제적 현실”을 강조하며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도덕적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하나의 理想, 그리고 매우 명확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필연을 자유에, 경제적 힘들을 인간 理性의 힘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상에서 출발하여 그들은 그에 따라 실질적 행동의 방향을 잡아나갔고 그것은 물론 부르조아지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메가 오면 자기의 생산물의 주인이 되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생산자들의 자의식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²⁷⁾

유물론이 물론 맑스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프랑스의 유물론자들, 독일의 고전철학, 특히 헤겔의 변증법,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복고왕정시대의 프랑스 역사가들이 모두 맑스주의 철학체계의 탄생에 기여했음을 플레하노프는 밝혔다. 그러나 드올바흐나 엘베시우스 등은 정신현상을 물질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사회환경이 사상에 미치는

26) Chagin, 앞 책, p.66. Baron, 앞 책, p.287.

27) Plekhanov, 앞 책, I, p.677.

영향을 바르게 파악했지만 역사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며,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자가당착에 빠졌으며 결국 주관주의적 사고의 원천이 되었다. 헤겔은 삶의 모든 형태에는 그것을 부정하고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요소가 배태되어 있으며, 역사는 개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전개된다 함을 보여준 데서 맑스주의 철학의 형성에 있어 공헌이 컸다. 그러나 그는 변증법을 관념론의 토대와 결부시킴으로써 결국 역사에서 필연이란 정신적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상화해 버렸다. 19세기초의 역사가들은 역사에서 계급간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했고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은 인간 해방을 위한 사회개조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자 다 결국은 불변하는 인간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관념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체제들의 결합을 극복하고 유물론과 변증법을 배합시켜 이룩한 맑스주의의 탄생은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비교되는 것이었다.²⁸⁾

맑스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특히 생산수단의 발달을 통해 자연을 지배할 수 능력을 증가시켜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고 플레하노프는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적 변화란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의 발달에 따라 결정된다 하는 것이 유물론적 역사관의 핵심이었다. 역사에서 필연이란 물질적 조건에 뿌리박고 있었으며 자유란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역사의 법칙을 터득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내세우는 理想의 기준은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역사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고정 불변의 것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의적 세계에 대해 작용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맑스의 말을 플레하노프는 인용했다.²⁹⁾

플레하노프는 맑스주의가 경제결정론이 아님을 밝히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생산력 발달의 어떤 특정한 수준에서나 그에 맞는 정치제도, 사회심리, 이데올로기적 형태들이 생성되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들간에는 항상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개별적 상황에서는 심리적 변화가 경제적 변화에 선행할 수도 있었다. 또한 예술, 철학, 미술 등 문화적 상부구조끼리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단지 그 영향력이란 사회적 조건의 유사성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³⁰⁾

맑스주의는 역사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할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함을 플레하노프는 또한 강조했다. 역사가 필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터득하고 그 시대와 사회의 조건에

28) 같은 책, 1, pp.612-613.

29) 같은 책, 1, p.613.

30) 같은 책, 1, pp.569-570, 683.